

영어전용교실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개선 방안

전영주
공주대학교

Jeon, Young-Joo. (2009). A layout to improve the construction and management of classrooms especially designed to teach English. *Modern English Education*, 10(2), 133-154.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various types of classrooms available in order to improve students' English communicative competence. A survey was conducted on forty-one secondary school teachers and one hundred forty-four high school students. Seventy-two of the students had English class twice a week. The other seventy-two students had English class once a week to prepare for the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The questionnaire consisted of fifteen questions covering areas such as the strong and weak points of the classroom environment, and the ways that the teachers could utilize the room to teach more effectively.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opinion amongst the groups. However, the teachers and students are in agreement that various classroom environments and diverse teachings methods are necessary to conduct more effective classes. The teachers especially demanded more diverse classrooms. Therefore it is better to make 2 or 3 low-budget variation type classrooms to teach English if a school has over 24 classes. Based on the data analysis, more research should be done about the types of classrooms that would help improve how English is taught in Korean secondary schools.

[Classrooms Specifically Designed to Teach English/English experience classroom/TEE/World Englishes/영어전용교실/영어체험교실/영어로 진행되는 영어수업/세계영어]

I. 서론

21세기의 학교 영어교육은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2009년부터 실시하기 시작한 '2007년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은 7차 교육과정에서 시도된 학습자 중심의 의사소통 중심 교수·학습 방법을 더욱 확대하여 의사소통 능력 신장을 위한

다양한 활동과 영어로 진행되는 영어수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08b).

또한 2001학년도부터 교육부는 ‘영어로 진행되는 영어수업(TEE)’의 도입을 권장해 왔다. 정부의 이러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일선 학교에서 실용 영어 중심의 영어로 진행되는 영어 수업이 자리를 잡는 것은 쉽지 않았다(양인근, 2004; 임병빈, 2007; 최윤희, 2007). 오히려 의사소통 중심 영어교육의 해결책으로 공교육보다는 조기 해외 연수나 사교육 기관을 활용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영어교육과 관련하여 계층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는 공교육 정상화를 2008년 주요 국정과제로 설정하였다. 특히, ‘학교 교육만족도 제고’를 위한 정책 중 영어 교육의 질적 변화를 강조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08a).

2009학년도부터 실시되고 있는 ‘2007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서는 영어 수업을 학습(learning) 방식에서 영어로 말하고 쓰는 활동 체험(experience) 방식으로 전환한 교수·학습 방법을 권장하고 있다. 따라서 각 시도 교육청에서는 활동 체험 방식의 교수·학습 방법과 관련하여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와 ICT 도구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흥미를 높이고 성취감을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위해 초·중등 각 학교에 5,000만원의 예산을 배분하여 의사소통 중심의 영어진행수업을 돕는 영어수업을 위한 전용 공간인 영어전용교실을 2009년 상반기까지 구축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영어수업을 위한 전용 공간인 영어전용교실의 구축과 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영어전용교실의 구축과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의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영어전용교실의 구축과 운영 방안에 대한 반응과 개선방안을 조사·분석하여 앞으로 학교 실정에 맞는 영어전용교실을 마련하는데 기초 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앞으로 구축되어질 영어전용교실이 학생들의 영어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 그리고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공간으로서 그 기능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체험중심 영어 학습 공간

교육과학기술부는 1,16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전국 중·고등학교에 1~2실의 영어전용교실을 구축하기 시작했다(대전광역시교육청, 2008). 그리고 2009년 4월 현재 2,539개 중·고등학교에 영어전용교실이 구축되었으며, 초등학교

1,387개교에도 영어체험교실을 구축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2003년 4월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에서 추진한 ‘경기영어마을과주캠프’를 시작으로 해외에 나가지 않고서도 다양한 영어권 문화를 체험하고 습득할 수 있는 놀이, 체험, 교육이 통합된 새로운 형태인 체험위주의 영어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영어마을의 구축을 교육기관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의 예산을 지원하여 하나의 독립된 마을형태로 구축한 사례는 외국에서도 보기 드문 형태이다. 이는 해외영어연수 및 조기유학과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 등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해 교육기관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영어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안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대규모 영어마을은 체험학습 중심의 영어교육에 큰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대규모 영어마을 조성 및 유지 및 관리를 위한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그 방향이 소규모 거점 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의 형태로 바뀌었다. 2006년 교육인적자원부는 영어교육 혁신방안의 하나로 거점 초등학교 영어체험학습센터 구축사업을 시작하였다. 비교적 사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거점 초등학교를 선정하고 그 학교에 영어체험학습센터를 운영하여 더 많은 학생들에게 실용영어 중심의 영어체험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시작되었다(교육인적자원부, 2006). 기존의 영어마을보다는 학습자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거점 초등학교에 영어체험 학습시설을 두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거점 영어체험학습센터는 각 시·도가 기존 학교의 유휴교실을 활용하여 소규모의 영어체험학습센터를 구축하고 해당지역의 학생들이 정규시간이나 방과 후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영어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함으로써 영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정책이다(강후동, 김미경, 이재희, 이선, 2008).

거점 체험학습센터는 교실 2~3칸부터 8칸까지 다양한 규모의 공간을 활용, 또는 건물의 대부분을 활용하는 형태인 반면에 영어전용교실¹은 1.5칸 규모의 공간에 단위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사소통 중심 영어수업,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 수준별 이동수업, ICT를 활용한 디지털 수업 등 다목적 활용이 가능한 축약된 형태의 다용도 가변형 교실이다. 초등학교에 구축된 영어체험교실과의 차이점은 근본적으로 없으나 학교 급별에 따른 최적의 교수학습 방법의 투입을 위하여 활용된다는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상황 체험, 영어동화책 읽기, 역할놀이 등이 영어체험교실의 주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영어전용교실은 다양한 활동 위주의 의사소통중심 영어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영어전용 교육공간이라는 점에서 영어체험교실과 같은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¹ 교육과학기술부는 중·고등학교에 구축된 체험중심의 영어수업을 위해 일반교실과 다른 별도의 교육시설공간으로 만든 것을 영어전용교실이라 칭하고, 이에 상응하는 초등학교에 구축된 공간을 영어체험교실이라 명명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형태	내용	규모	특징
체험과 놀이	영어마을	마을 (여러 개의 건물과 거리)	영어 사용 국가에 방문한 것과 같은 실물들로 구성
↓			
체험과 놀이 + (약간의 수업)	거점 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	건물 (몇 칸의 교실과 복도)	실재 건물을 작은 모형화 된 공간으로 제작
↓			
수업 + (약간의 체험)	영어전용교실	교실 (1.5칸 교실)	실사 스크린으로 영어사용 환경 분위기 조성

그림 1. 체험중심 영어 학습 공간의 변화.

특히 80~90년대에 일선 중·고등학교에 설치된 어학실을 영어전용교실로 리모델링하는 설치유형이 많았는데 이는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발음 지도 및 문형연습에 초점을 둔 구두청화식 교수법이 유행했던 그 당시의 교수법의 반영이라 할 수 있다(Brown, 1982). 어학실의 긴 역사가 ‘영어로 진행되는 영어 수업’의 강조와 더불어 ‘영어전용교실’에 그 자리를 내어 주었다고 볼 수 있다. 기존 어학실과 영어전용교실의 차이는 어학실이 고정된 부스에 기계와의 근접성이 강조되고 음성위주의 녹음기를 활용한 수업이라면 영어전용교실은 교사와 학생이 서로 근접한 위치에서 다양한 형태의 수업이 가능한 가변형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영어전용교실과 관련된 선행연구

영어전용교실은 2008년부터 교육과학기술부의 정책으로 각 학교에 구축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므로 영어전용교실과 관련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본 연구와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 전용교실의 ‘Space Program’ 연구(양진국, 2002), 영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영어전용교실 시설 계획 연구(채홍길, 2008), 효과적인 초등학교 영어체험학습 센터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요구도 조사(강후동 외 3인, 2008) 등이 있다.

양진국(2002)은 영어전용교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전에 교과전용교실 중 하나로 7차 교육과정에 명시된 의사소통 중심의 영어수업을 위한 영어전용교

실이 갖추어야 할 시설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안하였다. 특히, 24개 학급을 기준으로 각 학교당 4개의 영어전용교실이 필요하며, 학급당 인원수는 35명 선이 적당하다고 했다. 또한 각 학교당 필요한 영어전용교실 수를 4개로 산정하였으며, 산정 근거는 다음과 같다.

교과교실수는 학습 집단과 교과별 주당 수업시수, 교과목수, 주당 수업가능시간, 교실이용율 등의 변인에 의하여 산정하게 되는데 김승제의 산정 이론에 의하면 주당 34시간으로 이용율이 70%인 경우, 영어과 교실은 4(3.3개)개의 교과교실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김경호, 2001).

또한 교과교실 공간의 구성요소로 교사 연구 공간, 교수·학습 공간, 자료 보관 공간, 자료 열람 및 듣기 공간, 결과물 출력 및 제작 공간 등을 들었다. 영어전용교실의 면적은 총 105m²로 도출하였으며, 이는 현재까지 제시되어 온 학교 교사 표준 설계도의 9×7.5=67.5m²보다 약 64%가 확장된 14×7.5로 최소 교실 한칸 반 정도의 면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채홍길(2008)은 2007년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된 시설 실태조사 자료를 기초로 하여 중·고등학교 영어교사를 대상으로 사용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주제는 기존 어학실 활용에 대한 견해, 영어전용교실의 필수 기기, 바람직한 영어전용교실 활용수업 등이었다.

설문자료 분석을 통하여 기존 어학실 활용이 잘 안되었던 이유를 중학교 교사들인 경우, 낙후된 시설(45%), 고정식 좌석의 불편함(21%), 듣기중심의 수업으로 말하기·읽기·쓰기 능력의 저하(12%)로 들었다. 그리고 고등학교 교사들의 경우, 의사소통이 단절되는 기기중심의 고정적 설비(32%), 교사수 대비 어학실 수 부족(25%), 수능 중심의 교실 수업과 교단선진화를 통한 어학실 활용의 필요성 감소(18%)를 들었다.

영어전용교실의 필수 기기에 대해서는 중·고등학교 모두 다양한 활동수업을 할 수 있는 가변형 책상이 우선순위가 되었으며, 다음으로 멀티미디어 기자재, 정보검색대를 들었다. 또한 중학교에서는 멀티미디어와 활동중심의 어학수업으로 인한 주변교실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방음시설을 구비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바람직한 영어전용교실 활용수업을 위한 제언에서는 상호협력수업과 학생 수준에 맞는 다양한 영어 도서를 활용한 수업을 선호하였으며, 특히 영어전용교실을 통한 영어사용기회 확대를 위하여 영어만을 사용하는 구역인 'English Only Zone'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특이한 점은 설문에 응한 고등학교 교사의 15%가 모든 학생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교사 1인당 하나의 영어전용교실 구축을 건의하였다.

강후동 외 3인(2008)의 연구는 2007년 교육부지정 거점 초등학교 영어체험

학습센터가 설립되고 운영될 5개 거점 초등학교와 인근 11개 학교의 교사 및 담당자 272명, 학생 2,353명, 학부모 2,854명을 대상으로 수행한 대규모 연구였다. 영어전용교실의 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영어체험학습센터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분석 결과 중 영어전용교실에서 참고할 만한 사항은 재미 위주의 학습보다는 학습효과를 거둘 수 있는 영어체험학습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임희주(2005)가 지적한 영어마을의 교육과정에서 학습자의 흥미 위주보다는 언어사용 기회를 충분히 주는 수업적 성격의 영어학습도 필요하다는 지적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문화중심, 과업중심, 내용 중심 체험단계로 자연스럽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교사의 의식적인 의지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상의 선행연구 결과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영어전용교실 구축 사업에 어느 정도 반영되어 실천되고 있지만 학교별 영어전용교실의 개수를 늘여야 한다는 의견을 고려하여 향후 정책이 24학급 이상의 학교는 4개의 영어전용교실이 필요하다는 양진국(2002)의 연구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지나치게 재미위주의 수업을 진행하기 보다는 재미에서 시작하여 지속적인 학습이 영어 습득으로 이어지도록 교사의 의도적인 교수·학습 전략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3. 영어로 진행되는 영어수업에 대한 지원

영어전용교실 구축의 가장 중요한 취지 중 하나인 영어로 진행되는 영어수업과 영어전용교실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영어로 진행되는 영어수업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영어교사들은 영어로 진행되는 영어수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지만 스스로의 영어구사 능력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utler, 2004; Nunan, 2003; Pavelnko, 2003; Timmis, 2002). 교사가 수업을 할 때는 학생들의 인지적 지식 습득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신뢰와 존중도 원한다(Bourdieu & Passeron, 1977). 학생들을 위해서 교사 자신이 가지는 수업에 대한 자신감과 사회적 인정은 반드시 필요하다(Clifton & Roberts, 1993). 교육이란 배우는 사람이 가르치는 사람에 대한 신뢰와 존중이 있을 때 가능하다.

그러나 영어교사들의 영어실력을 회화 능력으로 판단하려는 태도와 영어 말하기가 유창한 교사들을 모델로 부각시키려는 방식의 동기부여는 실효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많은 영어교사들의 자신감을 떨어뜨리는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이성락, 2008).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영어로 진행되는 영어 수업 방법에 대한 교수법적 지원과 교사의 의견을 고려한 체계적인 연수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임병빈, 전영주, 2009).

이 밖에 영어로 진행되는 영어수업 정착을 위해서는 교사 변인에 대한 보강 뿐 아니라, 영어전용교실과 같은 시설 차원의 하드웨어적인 지원도 역시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원어민교사가 배치되고 의사소통 중심의 영어로 진행되는 영어수업을 위한 영어전용교실을 구축하는 것이 학생들의 실용영어 능력을 개발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어떤 최신의 멀티미디어 기자재나 많은 예산이 투입된 시설이라 할지라도 이를 운영하는 영어교사가 수업에 대한 자신감과 열정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4. 세계어로서의 영어

수업을 영어로 진행해야 하는 영어교사와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에서 적극적인 참여를 해야 하는 학생들 모두 자신의 영어가 표준 영어(Standard English)에 비하여 부족하거나 원어민 교사의 영어에 비해 열등하다는 생각을 한다면 영어전용교실이 아무리 구축이 된다하여도 의사소통 중심의 실용 영어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영어 수업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고정관념을 타파하기 위하여, 비영어권 교사나 학생들에게 자신감을 줄 수 있는 사회언어학적 개념인 세계어를 소개한다(Jenkins, 1998; Rajagopalan, 2004). Kachru(1985)는 세계 각국에서 사용되는 영어의 역할을 기준으로 국가 유형을 내부 지역(inner circle), 외부 지역(outer circle), 확대 지역(expanding circle)으로 분류하였다. 내부 집단에는 영어가 모국어로 사용되는 국가들(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이 속하고, 외부 집단에는 다언어 국가로서 영어가 ESL로 사용되는 국가들(인도, 필리핀, 싱가포르 등)이 포함되며, 확대 집단에는 영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많은 국가들(중국, 일본, 한국, 독일 등)이 포함된다.

Medgyes(1983)는 교사도 해당 외국어의 평생학생이라고 말하면서, 세계어 개념이 학생뿐만 아니라 비 원어민으로서 해당 외국어를 가르쳐야 하는 교사에게 의식적 치유 효과를 줄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영어로 진행되는 영어수업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는데 도움이 된다고 역설했다.

따라서 'Korean-English'를 'World Englishes'의 하나의 유형으로 보고, 교사와 학생이 쓰는 영어를 내부 집단에서 사용하는 영어보다 열등하거나 잘못된 영어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다르다는 것과 잘못되었다는 것은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지나친 표준영어에 대한 압박으로 인하여 학습자에 대한 파악이나 교수법에서 탁월한 한국인 교사가 내부 지역의 영어에 위축될 필요가 없음을 본 세계어의 개념을 통해 알 수 있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문제

일선 학교 교사들은 영어전용교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운영되고 있는 학교에서는 영어전용교실 시설 중 어떤 것을 영어전용교실 구축을 계획하고 있는 다른 학교에 추천하고 싶은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여 경제적이고 유용한 영어전용교실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영어전용교실을 이미 구축하여 3개월 이상 사용하고 있는 전국의 41개 중·고등학교의 교사에게 영어전용교실 구축 및 사용에 대한 요구 사항과 의견을 조사하여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학생들의 요구를 분석하기 위하여 두 집단을 선정하여 사전·사후 설문을 실시하였다. 영어전용교실 구축 전에 두 집단에게 영어 학습에 대한 흥미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을 때, 이 두 집단의 영어 학습에 대한 흥미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두 집단은 영어 학습에 대한 흥미에 있어서 동질하다고 볼 수 있다. 2009년 2월 영어전용교실을 구축한 후, 3개월 간 영어전용교실을 두 집단에 사용하게 하였는데, 실험 집단(72명)에게는 의사소통 중심의 영어전용교실 활용 수업을 1주일에 4회 실시하고, 통제 집단(72명)에게는 1주일에 1회 영어 전용교실에서 수업을 하였으며, 교수·학습 방법은 기존의 교사중심의 강의식 수업을 하였다.

이러한 실험이 가능했던 이유는 실험집단과 통제 집단이 학년이 달랐고 실험집단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로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에 속한 ‘고등 영어’를 진행하면서 의사소통 중심의 다양한 학습자 중심의 교수·학습 방법을 적용할 수 있었다. 특히, 원어민교사와의 팀티칭도 1주일에 2회씩 규칙적으로 실시하였다. 그러나 통제집단은 입시준비를 해야 하는 학년으로서 1주일에 한번 씩 영어전용교실을 사용하였으며, 기본적인 수업 방법은 입시 중심의 강의식 수업을 하였다.

본 연구가 위와 같은 실험을 계획한 것은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 영어전용교실을 본래의 취지에 맞게 의사소통 중심으로 교수·학습을 적극적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와 교수·학습 방법의 변화 없이 기존 방식대로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에 학생들에게 각각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영어전용교실의 운영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는 각각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09년 현재 영어전용교실이 운영되고 있는 학교의 교사와 학생

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교사는 41명으로 담당학년은 1학년 14명, 2학년 13명, 3학년 14명이며, 해외연수경험은 전혀 없음 14명, 1주~1년 미만 19명, 1년 이상 8명이 응답하였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교사의 근무지역은 서울, 경기, 대전, 충남, 인천, 광주였다. 그리고 학생은 1학년 72명, 2학년 72명이며, 해외연수경험은 전혀 없음 82명, 1주~1년 미만 47명, 1년 이상 15명이 응답하였다. 실험집단 학생 72명은 일주일에 2번씩 의사소통 활동 중심의 영어로 진행되는 영어수업을 영어전용교실에서 했고, 나머지 72명은 기존의 교사 중심의 강의식 수업을 영어 전용교실에서 일주일에 한번 씩 했으며, 두 그룹 모두에게 영어로 진행되는 영어수업을 적용했다. 자료분석은 SPSS(Ver. 12.0)를 사용하여 설문결과를 분석하였으며, 영어전용교실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요구를 알아보기 위하여 연구대상에 대하여 빈도분석, 교차분석, t-검정, ANOVA를 수행하였다.

IV. 분석 결과 및 논의

본 연구의 문제에 따른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영어전용교실의 필요성 및 활용과 학습의 효과 그리고 영어전용교실의 개선 사항과 수업 개선 사항으로 나누어 기술하고자 한다.

1. 영어전용교실의 필요성 및 활용

‘영어전용교실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하여 학생은 ‘그렇다’가 41.7%로 가장 많았으며, 교사는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가 각각 34.1%로 설문조사에 참여한 교사들은 영어전용교실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 참조).

표 1
영어전용교실의 필요성(단위: %)

항목	학생	교사
전혀 그렇지 않다	3.5	0.0
그렇지 않다	11.1	9.8
보통이다	25.7	22.0
그런 편이다	41.7	34.1
아주 그렇다	18.0	34.1
합 계	100.0	100.0

‘영어전용교실에서 주당 몇 시간의 영어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적당한가’에 대하여 학생은 ‘4회(41.7%)’가 가장 많았으며, 교사는 ‘1회(46.3%)’가 가장 많았다. 그리고 학생의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사와 학생 간에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생들이 영어전용교실에서 수업하는 것을 매우 선호함을 알 수 있다(표 2, 표 3 참조).

표 2

학년별 주당 영어수업 회수

	구 분		전체	χ^2	P
	실험집단	통제집단			
0회	1	2	3	11.836	.019
1회	3	5	8		
2회	15	31	46		
3회	14	13	27		
4회	39	21	60		
전체	72	72	144		

표 3

학년별 주당 영어수업 회수

	구 분		전체	χ^2	P
	교사	학생			
0회	1	3	4	44.844	.000
1회	19	8	27		
2회	11	46	57		
3회	2	27	29		
4회	8	60	68		
전 체	41	144	185		

‘영어전용교실에서 어떤 유형의 영어 수업이 적합한가’에 대하여 학생 (49.3%)과 교사(51.2%) 모두 ‘멀티미디어 활용 수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4 참조).

표 4

영어전용교실의 수업유형(단위: %)

항목	학생	교사
의사소통중심역할극	18.1	22.0
멀티미디어활용	49.3	51.2
강의식 수업	3.5	24.4
그룹별토의수업	29.1	2.4
합 계	100.0	100.0

‘영어전용교실에서 영어수업을 영어로 진행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하여 학생(47.9%)과 교사(36.6%) 모두 ‘바람직하다’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5 참조).

표 5

영어전용교실의 수업을 영어로 진행(단위: %)

항목	학생	교사
전혀 좋지않다	2.1	0.0
좋지 않은 편이다	7.6	7.3
보통이다	23.6	24.4
좋은 편이다	47.9	36.6
아주 좋다	18.8	31.7
합 계	100.0	100.0

‘영어전용교실에서 어느 정도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적당한가’에 대하여 학생은 ‘60~80%(32.6%)’가 가장 많았으며, 교사는 ‘80~100%(34.1%)’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전용교실에서 활용도가 가장 높은 비품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학생은 ‘물세척 칠판(34.0%)’이 가장 많았으며, 교사는 ‘전자칠판(39.0%)’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교사와 학생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 참조).

표 6

영어전용교실에서 활용도 높은 비품

	구 분		전체	χ^2	P
	교사	학생			
가상 스튜디오	2	19	21	33.328	.000
전자 칠판	16	46	62		
물세척 칠판	7	49	56		
영어 도서	6	10	16		
검색용 컴퓨터	3	20	23		
기타	7	0	7		
전 체	41	144	185		

‘영어전용교실이 무엇 때문에 가장 좋은가’에 대하여 교사와 학생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시설에 대한 선호도를 살펴보면, 많은 예산이 요구되는 가상스튜디오에 대해 교사와 학생 모두 선호도가 낮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반면에 영어수업을 위한 전용공간이 확보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만족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 7 참조).

표 7

영어전용교실의 장점

	구 분		전체	χ^2	P
	교사	학생			
가상 스튜디오	0	16	16	28.580	.000
전자 칠판	10	22	32		
물세척 칠판	2	10	12		
영어 도서	4	8	12		
검색용 컴퓨터	0	28	28		
책걸상	1	9	10		
쾌적한 환경	3	0	3		
전용 공간	21	51	72		
전 체	41	144	185		

‘영어전용교실을 ‘English Only Zone’의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하여 교사와 학생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와 학생 모두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으며, 교사가 조금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8 참조).

표 8

영어전용교실의 'English Only Zone' 활용

구분	평균	표준편차	t	F	P
교사	3.80	.813	2.597	78.343	.011
학생	3.41	1.006			

2. 학습의 효과

‘영어전용교실에서 수업 진행 후 영어에 대한 흥미가 높아졌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하여 학생의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생과 교사 간에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9, 표 10 참조).

표 9

영어전용교실 수업진행 후 영어에 대한 흥미도

구분	평균	표준편차	t	F	P
실험집단	3.61	.912	4.559	142	.000
통제집단	2.92	.915			

표 10

영어전용교실 수업진행 후 영어에 대한 흥미도

구분	평균	표준편차	t	F	P
교사	3.54	.674	2.050	92.607	.043
학생	3.26	.975			

‘영어전용교실에서 영어 수업을 진행한 후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는가’에 대하여 학생(40.3%)과 교사(63.4%) 모두 ‘그런편이다’가 가장 많았으며, 학생의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1 참조).

표 11

영어전용교실 수업진행 후 영어에 대한 자신감

구분	평균	표준편차	t	F	P
실험집단	3.44	.886	4.347	142	.000
통제집단	2.78	.953			

‘영어전용교실에서 영어 수업을 진행한 후 영어에 대한 실력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하여 학생(43.8%)과 교사(46.3%) 모두 ‘보통이다’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생의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영어전용교실의 목적인 의사소통 중심의 다양한 교수·학습에 노출된 실험 집단이 실력향상에 대해 통제집단 보다 더 긍정적인 것으로 응답하였다(표 12 참조).

표 12

영어전용교실 수업진행 후 영어 실력 향상

구분	평균	표준편차	t	F	P
실험집단	3.44	.933	3.613	142	.000
통제집단	2.89	.912			

3. 영어전용교실의 개선 사항과 수업 개선 사항

‘영어전용교실의 시설 중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하여 학생은 ‘영어도서부족(22.9%)’이 가장 많았으며, 교사는 ‘학급수에 비교하였을 때 영어전용교실부족(53.7%)’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양진국(2002)이 주장한 것처럼 영어전용교실을 학급수가 많을 경우에는 추가로 2~4개 정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예산이 확보가 가능한 경우 채홍길(2008)의 연구에서 제시한 영어교사 1인당 1영어전용교실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볼 수 있다. 또는 구축비용이 적게 투입되는 영어전용교실을 다수 구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표 13, 표 14 참조).

표 13

영어전용교실의 시설개선 사항: 학생(단위: %)

항목	학생
가상스튜디오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17.4
전자치판 기능부족	14.6
책걸상 이동 및 사용 불편	6.3
영어도서 부족	22.9
컴퓨터 사용 불편	20.1
없음	18.7
합 계	100.0

표 14

영어전용교실의 시설개선 사항: 교사(단위: %)

항목	교사
영어전용교실 부족	53.7
가상스튜디오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7.3
전자치환 기능부족	4.9
책걸상 이동 및 사용 불편	7.3
영어도서 부족	9.8
없음	4.9
기타	12.1
합 계	100.0

‘영어전용교실에서 진행되는 수업에 있어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하여 교사는 ‘영어전용교실에 맞는 의사소통 위주의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41.5%)’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15 참조).

표 15

영어전용교실에서 수업진행시 개선 사항: 교사(단위: %)

항목	교사
의사소통위주의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음	41.5
영어로 수업하는 것이 부담	7.3
다양한 활동 중심 수업으로 부담	22.0
영어 원어민 교사 상주는 잘못	14.6
없음	12.2
기타	2.4
합 계	100.0

학생들에게 ‘일반교실과 비교할 때 영어전용교실의 수업이 더 좋은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36.8%가 ‘아주 좋다’라고 응답하였으며, 학생의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6 참조).

표 16

영어전용교실의 효율성

구분	평균	표준편차	t	F	P
실험집단	4.11	.779	2.656	142	.009
통제집단	3.72	.967			

그리고 교사들에게 ‘영어전용교실 사용시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41.5%가 ‘영어전용교실의 부족’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담당하는 학년에 따라서 교사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7 참조).

표 17

영어전용교실 활용의 애로 사항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공	F	P
집단간	10.120	2	5.060	5.669	.004
집단내	125.853	141	.893		
합 계	135.972	143			

이상의 결과를 통해서 영어전용교실의 구축은 필요하며, 적합한 수업의 유형은 멀티미디어를 활용하면서 영어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영어전용교실의 비품 중 학생은 물세척 칠판, 교사는 전자 칠판을 선호함을 알 수 있으며, 영어전용교실이 ‘English Only Zone’으로 활용되기를 희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영어전용교실에서 수업을 진행한 경우, 영어에 대한 흥미, 자신감, 실력 향상 등은 학생의 집단 간에 차이가 있으며, 학생과 교사 간에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영어전용교실의 시설 개선 사항에 대하여 학생들은 영어도서의 부족, 교사들은 영어전용교실의 부족이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수업의 면에서 교사들은 의사소통 위주의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개선 사항으로 응답하였다. 특히, 교사들은 전교 학급 수에 비교할 때 영어전용교실의 부족에 대해서 지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의사소통 중심의 영어수업과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을 돕기 위한 영어전용교실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개선방안을 알아보기 위한 본 연구는 영어전용교실이 구축되어 이미 사용하고 있는 교사 41명과 학생 14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하였다. 학생은 영어전용교실의 본질적 목적에 충실한 의사소통 중심의 다양한 수업을 주당 4회 실시하게 한 실험집단(1학년)과 기존의 입시위주의 강의식 수업을 영어전용교실에서 주당 1회 실시한 통제집단(2학년)으로 나누어 연구하였다.

실험집단에게 실시한 수업은 ‘2007년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서 강조한 학

습자 중심의 다양한 활동을 통한 의사소통 중심 수업을 영어로 진행하였다. 영어전용교실에서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 수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원어민 보조교사와의 팀티칭도 주당 2회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영어전용교실의 필요성 및 활용도, 학습의 효과, 영어전용교실의 개선 사항과 수업 개선 사항으로 크게 3가지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첫째, 영어전용교실의 필요성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교사, 실험집단, 통제집단 학생 모두 그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영어전용교실의 수업 유형으로는 교사, 학생 모두 멀티미디어 활용 수업을 가장 선호하였으며, 영어전용교실 수업을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의 장으로 활용하거나 ‘English Only Zone’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교사, 학생 모두 찬성했다. 선호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고비용의 가상스튜디오보다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자칠판이나 물세척 칠판을 교사와 학생 모두 더욱 선호하였다. 특히, 영어수업만을 위한 쾌적한 환경의 전용공간이 있다는 자체를 교사와 학생 모두 가장 큰 장점으로 꼽았다.

둘째, 학습효과에 대해서는 의사소통 중심의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 수업을 접한 실험집단의 학생들이 통제집단 학생들보다 긍정적으로 대답하였으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셋째, 영어전용교실의 시설면의 개선점에 대해서 교사들은 영어전용교실의 추가 구축을 강력히 원하였으며, 24학급 이상의 대규모학교에서 7명 이상의 영어교사가 한 개의 영어전용교실을 나누어 사용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여 영어전용교실의 사용을 포기한 교사가 많았다. 특히, 기타의견란에 많은 교사가 현재 영어전용교실 하나를 구축하는데 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에 대하여 비판하며, 사용의 빈도수가 많은 시설을 갖춘 저비용 고효율의 영어전용교실을 구축할 것을 제안하였다.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중·고등학교의 영어전용교실에 꼭 필요한 시설을 살펴본다면, 약 1500만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가상스튜디오 보다는 빔프로젝터나 전자칠판과 디지털 캠코더를 결합한 약식의 가상스튜디오(200-1,000만원정도)가 더 효율적이라 판단된다. 특히 상대적으로 정적인 고등학교에서의 영어수업을 고려한다면 고등학교에서는 빔프로젝터(약 200만원)와 물세척 칠판(약 220만원), 이동식 책걸상(약 400만원)과 최소의 인테리어(약 800만원)와 학생용 컴퓨터 6대(약 700만원)로 구성된 총 2500만원 이하의 예산이 소요되는 알뜰형 영어전용교실 구축이 가능하므로 많은 교사들이 요구한 영어전용교실의 추가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영어전용교실의 수업 면에서의 개선사항에 대한 응답으로 영어전용교실의 본래의 취지에 맞는 의사소통 중심 수업이 많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한 것을 볼 때, 영어전용교실에 맞는 교수·학습 방법에 대하여 차후 지속적으로 연구되어 일선학교에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Myong-Hee Seong & Hyung-Ji Chang, 2009).

이상의 연구를 볼 때, 의사소통 중심 영어교육 실현을 위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영어전용교실 구축 정책은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받고 있으므로 본 구축 사업이 더욱 확대 시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앞으로도

영어전용교실의 구축과 효율적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와 정보 공유가 필요하며, 무엇보다 영어전용교실에 맞는 의사소통 중심 수업을 준비하기 위한 교재연구를 위한 시간과 여건이 일선교사들에게 확보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후동, 김미경, 이재희, 이선. (2008). 효과적인 초등학교 영어체험학습센터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요구도 조사. *영어교육* 63(2), 333-359.
- 교육과학기술부. (2008a). *영어교육 환경조성을 위한 학습 공간 구축 및 운영 방안 시설계획*.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과학기술부. (2008b). *외국어과 교육과정(1): 2007년 개정 외국어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08-160호[별책 14].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과학기술부. (2009). *영어교육 질제고 및 격차해소 방안 리플렛*.
- 교육인적자원부. (2006). *영어교육 혁신방안 정책참고자료*.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 김경호. (2001). 교과별 주당 수업시수에 의한 학급규모별 교과교실 산정방안.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7(7), 51-64.
- 대전광역시교육청. (2008). *영어공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영어전용교실 구축 기본 계획*. 대전: 대전광역시교육청.
- 양인근. (2004). *영어로 진행되는 영어수업의 실태 및 그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경희대학교, 서울.
- 양진국. (2002).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전용교실의 Space Program 연구: 중학교 영어교과교실의 구성에 대하여. *대한 건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2(2), 51-54.
- 이성락. (2008). *영어로 진행되는 영어수업: 교사들의 현실적 어려움과 그 해결방안*. 2008년 KOSETA 하계 워크숍 자료집.
- 임병빈. (2007). 한국 영어교육의 성찰과 발전적 대안 모색. *현대영어교육*, 8(1), 171-190.
- 임병빈, 전영주. (2009). 영어로 진행되는 영어수업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조사. *영어어문교육*, 15(1), 299-325.
- 임희주. (2005). *영어체험마을 사례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서울.
- 채홍길. (2008). 영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영어전용교실 시설 계획 연구. *EduCore 대전교육 정책연구*, 164-186.
- 최윤희. (2007). *영어로 진행되는 영어수업의 효과성 분석: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로. 석사학위 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

- Bourdieu, P., & Passeron, J. (1977). *Reproduction in education, society, and culture*. Beverley Hills, CA: Sage.
- Brown, D. H. (1982). *Principles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Butler, Y. G. (2004). What level of English proficiency do elementary school teachers need to attain to teach EFL? Case studies from Korea, Taiwan, and Japan. *TESOL Quarterly*, 38(2), 245-278.
- Clifton, R., & Roberts, L. W. (1993). *Authority in classrooms*. Scarborough, Ontario: Prentice Hall.
- Jenkins, J. (1998). Which pronunciation norms and models for English as an International Language? *ELT Journal*, 52(2), 119-126.
- Kachru, B. B. (1985). Standards, codification and sociolinguistic realism: The English Language in the Outer Circle. In R. Quirk & H. G. Widdowson (Eds.), *English in the World: Teaching and learning the language and literatures* (pp. 11-30).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ee, J. F., & VanPatten, B. (1995). *Making communicative language teaching happen*. New York: McGraw-Hill.
- Medgyes, P. (1983). The schizophrenic teacher. *ELT Journal* 37(1), 2-6.
- Nunan, D. (2003). The impact of English as a global language on educational policies in the Asia-Pacific region. *TESOL Quarterly*, 37(4), 589-613.
- Pavlenko, A. (2003). I never knew I was a bilingual: Reimagining teacher identities in TESOL. *Journal of Language Identity*, 2(4), 251-268.
- Rajagopalan, K. (2004). The concept of 'World English' and its implications for ELT. *ELT Journal*, 58(2), 111-117.
- Seong, Myeong-Hee & Chang, Hyung-Ji. (2009). Effective teaching techniques in teaching English through English. *Modern English Education*, 10(2), 93-113.
- Timmis, I. (2002). Native-speaker norms and International English: A classroom view. *ELT Journal*, 56(3), 240-249.

부 록

영어전용교실에 대한 의견 조사

이 설문 조사는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영어전용(체험) 교실에 대한 교사들의 의견을 조사하기 위함입니다. 영어전용교실과 관련한 질문들에 솔직하게 답해주시기 바라며, 본 설문결과는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의 기초자료로만 사용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영어전용교실: 영어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해 교과부가 전국에 있는 모든 학교에 5000만원씩의 예산을 배부하여, 그 설립을 권장하고 있는 의사소통 중심의 영어수업을 위한 교실(첨단 멀티시설과 이동식 책걸상이 특징)

2009년 5월

※ 기초조사 - 해당되는 항목에 √표 해주십시오.

구 분	()교사 ()학생
담당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해외 영어 연수/유학	()전혀 없다 ()1주~1년 미만 ()1년 이상

※ 다음은 영어전용 교실 설치 및 활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1. '영어전용교실'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그런 편이다 ⑤ 아주 그렇다

2. '영어전용교실'이 필요하다면 주당 몇 시간의 영어 수업을 '영어전용교실'에서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주당 시수 4시간을 기준으로 할 때)?

① 0회 ② 1회 ③ 2회 ④ 3회 ⑤ 4회 모두

3. 어떤 스타일의 수업에 '영어전용교실'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의사소통중심 역할극 ② 멀티미디어 활용 ③ 강의식 수업 ④ 그룹별 토의수업

4. '영어전용교실'수업에서의 영어수업을 영어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② 바람직하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바람직하다 ⑤ 매우 바람직하다

5. '영어전용교실'에서 영어로 수업을 진행한다면 어느 정도의 영어진행 수업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20%미만 ② 20-40% ③ 40-60% ④ 60-80% ⑤ 80-100%

6. '영어 전용교실'에서 활용도가 가장 높은 비품은 무엇입니까?

① 가상스튜디오 ② 전자칠판 ③ 칠판류(물칠판, glass board, 범당칠판 등)
④ 영어 도서 ⑤ 검색용 컴퓨터 ⑥ 기타: _____

7. '영어 전용교실'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 ① 가상스튜디오 ② 전자칠판 ③ 칠판류 ④ 영어도서 ⑤ 검색용 컴퓨터
 ⑥ 책걸상 ⑦ 인테리어와 쾌적한 환경 ⑧ 영어과 전용 공간이 있다는 점

8. ‘영어전용교실’을 ‘English Only Zone’의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좋지 않다 ② 좋지 않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좋은 편이다 ⑤ 아주 좋다

※ 다음은 영어전용 교실에서 수업 진행 후 학습 효과에 관한 질문입니다.

9. ‘영어전용교실’ 수업 이후, 학생들의 영어에 대한 흥미가 높아졌다고 느끼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그런 편이다 ⑤ 아주 그렇다

10. ‘영어전용교실’ 수업 이후, 학생들의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다고 느끼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그런 편이다 ⑤ 아주 그렇다

11. ‘영어전용교실’ 수업 이후, 학생들의 영어의사소통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느끼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그런 편이다 ⑤ 아주 그렇다

※ 다음은 ‘영어전용교실’에 대한 개선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12. ‘영어전용교실’의 시설 면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 ① 학급 수가 많은 학교에는 영어전용교실의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
 ② 가상스튜디오 프로그램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③ 전자칠판의 기능이 불편하다
 ④ 책걸상의 이동 및 사용이 불편하다 ⑤ 영어 도서가 부족하다
 ⑥ 없다 ⑦ 기타: _____

13. ‘영어전용교실’에서 실시되는 수업 면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교사만 응답하세요)

- ① ‘영어전용교실’에 맞는 의사소통 위주의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② ‘영어전용교실’에서 영어로 수업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 부담스럽다
 ③ 의사소통 중심의 다양한 활동 중심 수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스럽다
 ④ 영어원어민교사가 주로 상주하여 사용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⑤ 없다 ⑥ 기타: _____

14-1. 일반교실과 비교할 때, ‘영어전용교실’에서의 수업이 더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학생만 응답하세요)

- ① 전혀 좋지 않다 ② 좋지 않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좋은 편이다 ⑤ 아주 좋다

14-2. ‘영어전용교실’ 사용에 어려움이 있다면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하나만

고르십시오. (교사만 응답하세요)

- ① 전교 학 급수에 비해 영어전용교실이 하나 밖에 없어서 영어전용교실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다
 ② 영어전용교실의 시설이 사용하기에 불편하고 복잡하다
 ③ 입학시험 대비를 위한 강의식 수업에 도움이 안 된다
 ④ 영어전용교실에 맞는 수업 및 교재연구 시간이 부족하여 사용이 꺼려 진다
 ⑤ 원어민교사가 주로 상주하여 사용하므로 한국인 영어교사가 사용할 기회가 부족하다

※ 기타) ‘영어전용교실’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을 자유롭게 써 주십시오.

전영주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314-701 충남 공주시 신관동 182
Tel: (041) 850-8190/ H.P: 010-2489-1209
Email: ipeuni2@hanmail.net

Received 31 May 2009
Reviewed 23 June 2009
Revised version received 28 July 2009